

## 후배들과 함께 한 6개월간의 즐거운 머릿속 탐험

김 성 봉\*

### 일본에서 함께 한 ‘월드컵 4강’

2002년 한국에서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함성으로 온 나라가 들떠있을 때 나는 동경대 대학원 교육심리학과 특별연구학생으로 일본 동경에 있었다. 동경대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대학원생 스터디 모임\*\*에 학부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평소 관심이 있던 주제였던 인지신경 과학 관련 스터디 모임과 정서 관련 스터디 모임이 있어 참가했는데, 그 모임들에는 대학원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그리고 다수의 학부 3, 4학년생이 있었다. 또한 이들 모임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는 타 전공이나 다른 대학 출신의 학부 학생도 있었다. 이들의 학습 모임에서 나는 우선 학부생들이 일찍부터 대학원생들과 학문적 관심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며 자신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둘째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수준에서 이미 대학이라는 울타리와 학문 간의 차이를 뛰어 넘어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일본 대학생들의 열정적이고 개방적인 학문 활동에 대해 강한 부러움을 가지고 2002년 9월 귀국하였다.

### 반전, 2003년 6월

비록 한 학기 동안은 졸업 논문을 쓰느라 일본에서의 기억이나 학부 때부터 갖고 있던 학부생과 대학원생 사이의 보다 친밀한 학문적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어 두었다. 그러나 2003년 초엽, 졸업 논문을 끝마치자마자 나는 ‘인지신경과학과 교육’이라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곧 모임을 시작했다. 스터디 모임은 학부생들의 참여도 기대하고 문호를 열어 두었지만 역시 대학원생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 대학원생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학부생들의 참여 부족이 아쉬웠지만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던 작년 6월의 어느 날, 교육학과 김창대 교수님(사범대학 교육학과)으로부터 한 통의 전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 제 2유형 소그룹세미나 ‘인지신경과학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서 투터로 활동.

\*\* 동경대학에서는 이 같은 모임을 ‘제미(seminar의 일본식 발음)’ 또는 ‘겐큐카이(研究會의 일본식 발음)’라고 부른다.

\*\*\* 교육학과에는 예전에 대학원 선배들이 학부생들과 교육학 고전을 함께 읽는 독서 모임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학부를 다니던 때 이후로는 그러한 전통이 사라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과 새롭게 그런 전통이 부활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나는 학부 시절부터 대학원 석사과정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

화를 받았다. “김성봉 선생, CTL에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한 번 해보지 않겠어요?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 있으니 한 번 찾아볼래요?” 나는 교수님의 전화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하다니’ 하는 놀라움도 동시에 들었다. 나는 교수학습 개발센터의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이 학부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 모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연구지원비가 나오다는 점에서 학부생들의 참여를 손쉽게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곧 바로 이미 스터디를 함께 하고 있던 석사과정 후배와 학부생 후배와 함께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의 지원서를 준비하고 참여할 학부생을 모집하였다. 반응이 좋아 생각보다 쉽게 팀을 꾸렸다.

### 우리와 함께한 두뇌들

우리 팀은 형식적으로는 박사과정인 튜터 본인과 학부생 팀장 1명, 팀원 6명(석사과정생 1명, 학부생 5명)으로 구성되었다. 7월부터 우리는 이미 2003년 2월부터 진행해 오던 대학원생 중심의 ‘인지신경과학과 교육’ 세미나를 학부생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학부생을 팀장으로 정해 학부생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였고, 튜터와 대학원생 참여자는 보조하는 형식으로 체제를 바꾸어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여기에 매주 세미나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김창대 교수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셨다. 이렇게 지도 교수, 박사과정생인 튜터, 석사과정생, 학부생 팀장, 학부 연구원으로 구성된 막강한 연구팀이 구성되었다. 우리 팀은 매주 1회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인터넷에 온라인 카페를 통해 수시로 필요한 학습 정보를 공유하고 세미나 시간에 못다한 의견 교환을 도모하였다. 세미나 시간은 주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간된 도서나 연구 저널을 읽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를 통해 연구원들은 각자 자신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선정하여 개인별로 각 영역에서의 논의 수준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인지신경과학의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우리 연구팀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대학원생들 중심이었던 세미나의 주제와 연결지어 ‘인지신경과학의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삼았다.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뇌 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인지신경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교육과 학습이라는 인간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학과 교육 실천 분야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고민의 대상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에서는 이미 인지신경과학 연구가 기존의 교육학 연구의 문제인 ‘비과학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뇌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또 미국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

터 인지학습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그 결과를 통한 구체적 응용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과학(Science of Learning)’의 연구와 인지신경 과학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두뇌 기반 학습(BBL: Brain-Based Learn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논의 결과가 학교교육과 기업교육에 반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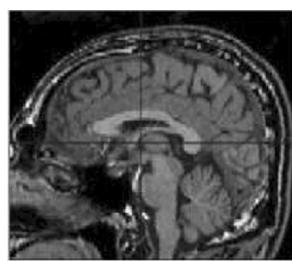
최근 들어 우리나라로도 이러한 세계적인 연구 흐름에 동참하여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구 성과를 조금씩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적 함의를 거론한다. 하지만 정작 교육학 분야 내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인지신경과학자의 입장에서 인지신경과학의 연구 성과의 교육적 함의 또는 제언이 제시되어왔을 따름이고, 교육학적 입장에서 인지신경과학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접근은 부족했다. 우리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교육학적 견지에서 인지신경 과학을 탐구하고자 했다. 우선은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하다면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 뇌는 즐거워야 한다.

우리는 뇌 기반 학습의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인 ‘즐겁게 공부하기’를 실천하기 위해 가급적 세미나를 즐겁게 참석하고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가끔은 정기적으로 모이

던 세미나 장소인 11동 강의실을 벗어나 신림동 녹두거리나 봉천사거리의 카페에서 모이기도 하고, 튜터가 잠시 근무했던 서울대병원 근처 대학로 ‘민토’에서 모임을 갖기도 했다. 본 튜터의 신혼 집에서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또한 결국 뜻을 이루진 못했지만 롯데월드 MT도 계획했었다.

매주 1회씩 개최된 세미나와 함께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생생한 연구 경험을 쌓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였다. 뇌 관련 학회에 다같이 참석하여 가장 진전된 연구 성과들을 접하고 선진 연구자들과의 대화를 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인지신경 연구실에서 시행하고 있던 뇌 관련 실험의 피험자로 참석하여 우리가 문현으로 접하는 연구 성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 실험에 참여한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신기해하며 우리 팀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뇌 사진이다. 자신의 뇌 사진을 받아 본 팀원들은 한결같이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했다.

다시금 되돌아보며 개인적으로 참으로 애착이 갔고 중요한 경험으로 여기고 있는 소그룹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6개월을 지금 돌이켜 보니 즐겁고 보람되기도 했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튜터로서 내가 팀원들에게 더 많

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부족한 튜터에게도 훌륭한 팀원들을 얻는 행운이 있어 연구팀이 끝까지 잘 운영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아쉬움은 연구팀의 당초 목표였던 '학교 및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부분을 달성하지 못했다. 6개월의 짧은 시간에 지식 습득과 적용 두 가지를 다 실행하는 것은 어려웠고, 주로 이론적인 고찰로 연구 기간이 종료되었다. 한 학기 정도 좀 더 지속되어 실험 방안을 도출하고 실험 수업을 실시하여 평가와 보고서 작성까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지원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었다. 우선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작과 끝은 있었지만 연구 활동 과정 중에는 특별한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 그 한 예로 중간 발표회와 같은 것은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다른 한 가지 운영상의 아쉬운 점은 연구팀에 제공된 연구 지원금이 6개월 간 7~8명의 연구원이 함께 연구 활동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우리 연구팀의 경우에는 튜터에게 지원된 지원금을 연구팀에 지원된 지원금과 통합하여 연구 활동 경비로 사용했지만, 항상 도서 구입이나 자료 복사비, 회식비를 걱정해야만 했다. 이외에도 장소 확보는 항상 매주 모일 때마다 고민거리가 되었다. 특히 우리 팀은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맞는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소간의 아쉬움이 남는 법. 이러한 몇 가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이번 약 6개월간의 소그룹세미나 프로그램은 아주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팀원들 개개인에게도 나름대로의 좋은 경험이었으며 학문적인 성취에 있어서도 많은 향상이 있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학부 때부터 일찍이 자신의 관심 분야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참여해 연구의 주체로서 문제를 탐구하고 주제 의식을 정련하는 경험들, 다른 연구자들과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경험. 이 모두 앞으로의 학문적 활동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연구자들이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 관심에 따라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이 부디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첫 해의 시도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제도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우리 대학의 많은 구성원들이 좋은 학문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C**